

튼튼한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해 정부,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다

- 전주기상지청, 전북도·지자체와 기상관측표준화 워크숍 개최 -

전주기상지청(지청장 임덕빈)은 4월 17일(수), 전북특별자치도, 지자체,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 17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여 「2024년 기상관측표준화 워크숍」을 개최하였다.

기상관측표준화란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시설의 공동활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·기준·환경 등을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상관측 업무 담당자들 간 업무를 상호 공유하고, 공동활용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, 기관별 협조사항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“위험기상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확한 기상관측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측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기상관측을 통한 방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2024년 기상관측표준화 워크숍 사진

담당 부서	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책임자	과 장	김형국 (063-249-3202)
		담당자	사무관	최경숙 (063-249-3231)

